

사설

‘방내리’ 지지 이유

경주를 통과하는 고속전철의 건설을 두고 해를 넘기며 거듭하던 논쟁이 이젠 다가오는 12월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벼랑에 몰렸다. 당초부터 이런 논쟁의 불씨는 이미 사업을 결정하던 단계에서 극명하게 내포되어 있었던 문제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던 주최기관에서 과거의 일방적이고 전횡적인 관행의 타성에 젖어 너무 안이하게 결정하면서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본다.

지금 논쟁의 초점은 지역적인 문제로 좁혀져서 경주의 역사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문제로 집약된 듯 한데 이런 강요된 선택의 폭이라면 경주의 역사가 어느쪽에 위치하던 근본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2월의 결정이 불가피하다면 ‘전철을 방내리’에 역사를 설치할 것을 차선책으로 동의한다. 이 차선책은 역사의 선과 병행하여 보다 근본적인 ‘고도 경주’의 중장기 개발계획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여러 문제를 즉각 수립한다는 전제에서 동의하는 것이다.

우선 전철을 방내리에 역사를 건립하는 것이 내남면 덕천리에 역사를 건립하는 것보다 나은 이유를 몇가지 지적해 본다.

첫째 문화재의 훼손 정도를 비교하면 두쪽 모두 훼손의 위험은 함께 가지지만 방내리쪽이 양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방내리 주변에는 단석산이 있고 그 산너머는 신선암이 있다. 그리고 둘 복판에는 황폐한 상태로 방치된 금적리 고분군이 있는데 방내리 덕천리는 남산에서 불과 2~3km 정도의 거리에 있고 경덕왕릉과 천룡사지의 경관과 연관되어 있다. 어느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비교하자면 방내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산 자체가 불교문화재의 보고인 남산이 결코

다쳐서는 안된다. 둘째로는 역사가 들어서면 당연히 뒤따라 역세권의 형성인데 이는 새로운 도시의 건설을 의미한다. 덕천리 일대가 지리적으로 볼산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방내리는 건천 아와 고아령리 등이 이웃하고 분지가 매우 커서 신도시 조성에 상대적 무리가 없다. 덕천리 일대가 남산을 옆에 두고 있어 스카이라인 관계로 건물들의 고도에 제한을 받는 대신 방내리는 제한을 받을 사적지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다. 오히려 경주시내의 사적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이점도 안고 있다. 역사건설로 인한 교통망을 보면 덕천리에서는 울산 언양쪽으로 교통망이 편중되어 있어 경주와 연결하지만 새로운 도로망의 건설이 불가피 하나 방내리에 역사가 들어서면 건천에서 남쪽으로 산내 언양, 서쪽으로 영천과 대구, 동쪽으로 경주와 울산, 북쪽으로 포항과 연결된 기존의 도로망이 있어 사통팔달하며 특히 새로운 도로망의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의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다.

끝으로 유의할 점은 전체 국민들의 진정한 정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말초적이고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기형적인 발달로 경제도 잃고 문화재도 잃을 것이다. 문화재 우선정책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 문화재로 인한 후세의 경제적 이익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는 우리 민족의 집약된 문화유산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아무리 부흥한 경제라도 천년의 역사와 문화유적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교훈삼자.

열린마당

경주 문화재 관리

중단·지역사찰·관련부처 등 유대강화

성관섭님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경주지역의 각 사찰과 불자들이 하나가 돼 경주를 지키는 ‘지킴이’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주시내의 사적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이점도 안고 있다. 역사건설로 인한 교통망을 보면 덕천리에서는 울산 언양쪽으로 교통망이 편중되어 있어 경주와 연결하지만 새로운 도로망의 건설이 불가피 하나 방내리에 역사가 들어서면 건천에서 남쪽으로 산내 언양, 서쪽으로 영천과 대구, 동쪽으로 경주와 울산, 북쪽으로 포항과 연결된 기존의 도로망이 있어 사통팔달하며 특히 새로운 도로망의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의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다.

종단도 경주에 불교문화재가 많이 분포돼 있지만만큼 소극적 방치가 아닌 적극적인 보존방식을 강구한다는 방침하에 오는 22일 ‘전국 불·말사 주지 결의대회’를 개최해 경주문제를 포함해 자연환경과 민족문화유산 수호를 위한 대 국민 선언으로 이들 문제에 대해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범국가차원 보존마스터플랜 세워야

지건길님 (국립경주박물관장)

경주보존을 논의할만한 공식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분항사 보수나 아파트건설 반대 등은 지역적인 문제해결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경주보존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문화특별시로 지정하는 것이나 관련법령 제·개정 등

을 그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야 한다. 마스터플랜이 없는 현행 지방자치체에서의 경주보존은 팽팽식 보수에 그칠 수밖에 없다. 현재 경주의 문화정책은 부족한 인력과 재정 그리고 관련법령의 미비 등으로 제 역할을 해내기에 역부족이다. 또한 개발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문화특별시 지정...남산 휴식년제 도입

김덕수님 (경주남산사랑모임 대표)

원칙적으로 경주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경주의 민선시장으로서의 여러가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는 행정을 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철도 경주노선 선정과 동천동 우방아파트 건립 허가 등 경주관리의 허점이 드러

나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장과 담당자들의 문화적 소양과 소신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주를 소중히 여기고 아낄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하는 것은 경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는 일이다. 세계적 문화유적도시에 걸맞는 국가적 지원책이 마

문화유적의 파괴는 곧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물론 이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고, 단순한 관념적 틀을 벗고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사회부가 곧 문화부와 사회부로 분리될 예정이다. 따라서 문화부가 문화재를 전담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체계적인 종단의 문화재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 제어할만한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개발에 앞서 여론수렴을 거친다고는 하나 일방적인 여론몰이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수의 무지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경주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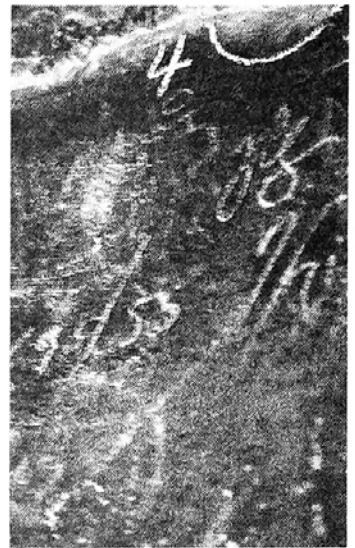
경주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경주보존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장기적 안목에서 하루하루 추진돼야 하며, 단기적 성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연태야 하며 문화재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주시민이 있다면 이들에게 그만큼 반대급부가 주어질 수 있다. 이는 정부 최고책임자의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된 후에는 각본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각종 법제의 정비와 남산휴식년제의 도입, 훼손된 유적의 복원 등에 대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경주를 더이상 소극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세계 10대 유적지의 하나인 천년 고도 경주가 신음하고 있다. 석굴암을 비롯해 분황사탑, 성덕대왕신종 등 경주의 국보급 문화재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가 하면, 경미장과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문화유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상실해가고 있다. ‘경주 파괴’는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는 우리역사 파괴와 다름없다. 무너져가고 있는 경주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종단을 비롯한 관계전문가들로부터 경주보존대책에 대한 방안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일명 예밀레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내부. ‘佛’ ‘1995.7.21’ 등의 낙서로 더럽혀져 있어 국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지경이다.

지난 6일 20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된 석굴암(국보 제24호) 내부에는 콘크리트등에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외에 몸체, 좌대, 연꽃받침에도 금이 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보존대책이 시급한데도 석굴암은 지난 61년 보수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정밀검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분황사 모전탑(국보 제30호)의 탑신부와 침실대(국보 제31호)는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진동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경주남산에는 목갈

재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또한 천년고도 경주가 시들어가고 있는 또다른 요인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주 고속철 문제는 아직까지도 노선을 확정짓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손곡동 일원에 세워질 경마장은 문화재파괴는 물론 문화유적도시의 이미지마저 실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천동 아파트는 시굴과정에서 신라시대 담장기초가 출토되면서 건립에 차질을 빚었는가 하면, 뒷쪽 두번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12층

훼손현황

지정문화재 283점 관리소홀 ‘신음’ 주변환경 아랑곳 개발 위주 ‘문제’

린 불상들이 어지럽게 나뒹구는 등 곳곳이 파헤쳐진채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4년간 훼손우려를 이유로 타종하지 않다가 지난 9월 안전진단을 실시했던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일명 예밀레종)에 이른 손가락 크기만한 구멍과 길다란 흠집이 수십개나 발견되고, 신종 내부에 쇳조각으로 휘갈긴듯한 낙서들이 어지럽게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문화재관리에 관한 ‘무정부 상태’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최근 몇년새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로인한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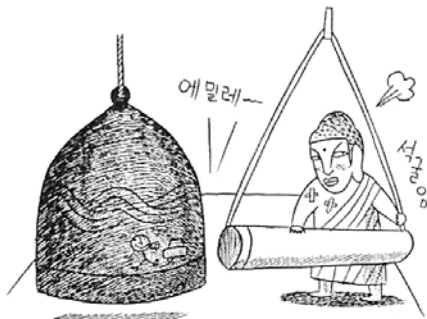
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등 팽팽식 행정으로 경주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외에도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산성비 피해로 문화재가 부식, 훼손돼 가는 등 대기·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주에는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1백98점, 도지정 문화재 49점, 문화재자료와 전통건조물 36점 등 총 2백83점의 지정문화재가 산재돼 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문화재 관리에 경종을...

목어

매일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이 미쳐가나’ 싶다. 거리에 나가면 교통지옥에다 호수까지 힘들고, 악랄한 살인사건, 공비침투, 공직자 비리, 서울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비리, 뽀빠이 이상룡의 성공착복 혐의 등 우리를 슬프고 노엽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줄을 잇는다. 그런 와중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랑의 꽃이 가끔씩 피어나 그래도 세상을 살맛나게 한다. 오순택 할아버지(80)는 전제사

10여만을 불우한 청소년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군포시에 전했다. 그는 말단공무원이었고 농부였다. 안락고 안쓰고 모은 현금 2억 원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그래도 살맛나는 세상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돼 받은 보상금 8억원을 내놓았다. 50여원의 전제사를 장차사업에 쓰라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 5일 간암으로 숨진 인촌의 김봉수 할아버지(73)도 막노동꾼에 농부였다. 그는 지난 91년 어렵게 모

은돈 50여원으로 인촌에 대인종 합고등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나 김봉수이사장은 “돈을 낸 사람은 학교일에 간섭해서 안된다”며 총남 당진으로 집을 옮겼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모은 전

재산 55여원을 지난 7월 부산대학에 기증한 공암집 강처녀할머니도 우리를 감동시킨 한 분이다. 아직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그 할머니가 지난 5일 전제방에서 홀로 숨을 거뒀다. 그러나 할머니가 남긴 보시정신은 영원히 시들

지 않는 꽃으로 피어 있으리라. 홍영덕씨(35)는 서울시민중 최다헌혈 기록으로 10월28일 서울시민의 날에 ‘내가 최고’ 부문에서 서울 기네스상을 받았다. 그는 15년간 117회의 헌혈을 했다. 그리고 헌혈증서를 백혈병환자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뿐이다. 은몸을 장기기증기로해 ‘물나누기 이웃사랑’이 죽어라까지 이어지게 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하나를 심어 열을 받고 열을 심어 백을 받고...만물 심어 역을 낳나니, 선행으로 인해 진리의 도(道)를 보게 되리라.” 나는 오늘 이웃을 위해 무엇을 나누었나? 자기를 들여다 보자.

새싹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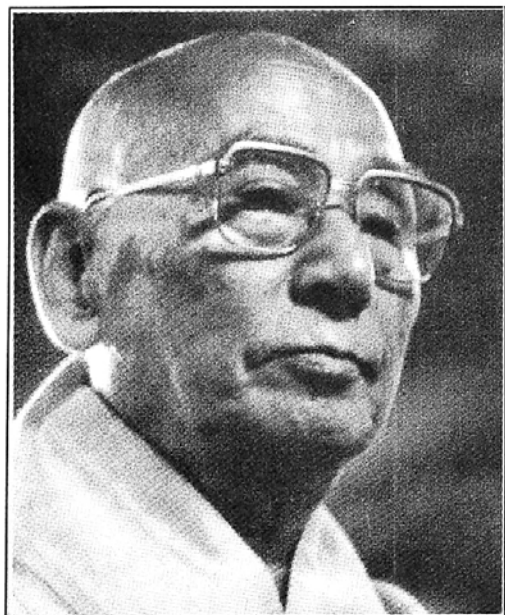
공부하는 방법

거문고 죽을 너무 쳐어도 소리가 나지않고 단정히 놓추어 놓아도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다.

청연암 주지 성욱 TEL.(0556) 72-0078

“불우 노인 위안” 자비의 대잔치

서암 큰스님 초청법회 (전 조계종 총정)



- 일 시 : 불기 2540년 11월21일(목요일 오후 1시)
■ 장 소 : 마산 MBC홀
■ 주 최 : 현대불교 경남마산지사(0551)23-5438,44-5128, 불교자비원
■ 후 원 : 경남신문사·불교부산방송·마산 MBC·마창불교연합회

- 축하공연 : 가수(현숙, 김태곤, 변해림, 너훈아, 이탄실) 스님(심진, 혜초스님 찬불가) (권중수 예술단)불교합창단, 살풀이, 오광대, 각설이, 춤과노래지랑

- 선물증정 : 참석자전원(표구공)보양삼매론 해인사8만대장경판「반야심경」탁본

협찬

무학주주주식회사

경남은행

대원종합건설주식회사 DAEWON CONSTRUCTION CO. LTD

정통불교조각·미술연구소

- 불상(청동·수불)
○ 입상,삼천불, 불교조각
○ 단청, 탕화

대표 정철 (0551)71-8414 · (011)571-6242